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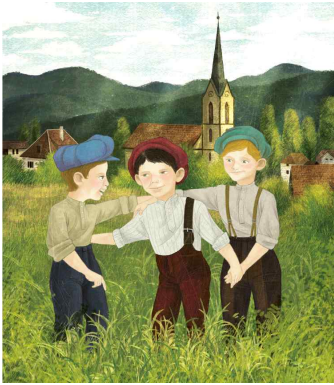


네 생각은
어때?

슈바이처의 일생

♥ 서브 도서 ‘아프리카야, 아프지 마!’는 슈바이처의 일생을 다룬 위인 동화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줄거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아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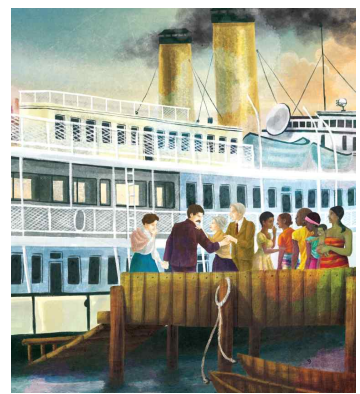
1875년 프랑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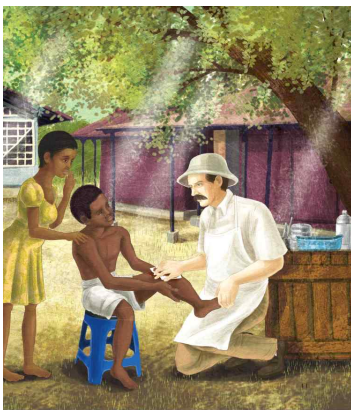
주변 친구들에 비해 잘살았지만, 가난한 친구들이 마음에 걸려 고기 수프도 먹지 않고 옷도 낡은 것을 입고 다녔지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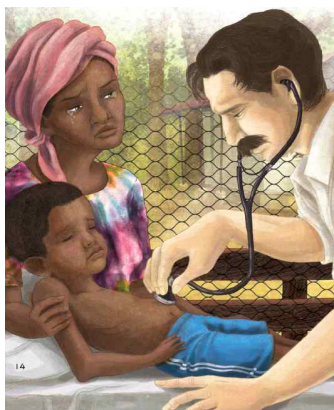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서른 살이 되던 1905년에 그걸 모두 포기하고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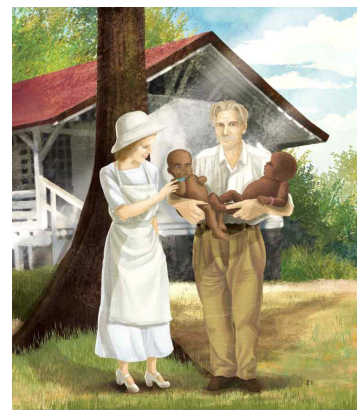
의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헬레네와 결혼한 뒤 1913년에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란 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시작했지요.

5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점차 병을 고치는 그를 요술쟁이라 부르며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6



전쟁으로 아프리카를 잠시 떠났던 적도 있었지만 6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는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본 일에만 열중했지요. 그 결과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은
어때?

여름 별자리

♥ 여름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여름 별자리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백조자리>



여름철 밤하늘에서 머리 꼭대기에 보이는 커다란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로, 은하수 한가운데를 마치 백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것 같지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백조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해요. 제우스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질투가 심한 아내 헤라에게 들켜지 않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러 가려고 백조로 탈바꿈해 올림포스 산을 빠져 나오곤 했지요.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레다는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 미인 중의 미인 헬렌을 낳게 된답니다.

<거문고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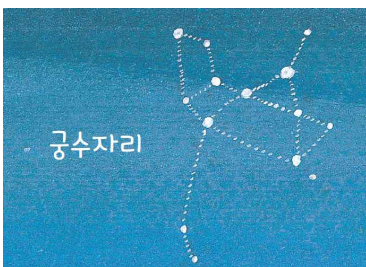
여름철 밤하늘의 대표적 별자리로 머리 꼭대기에 보여요. 거문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베가'는 '직녀성'이라고도 불러요. '직녀성'에는 사랑하는 사이인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오직 1년에 한번, 7월 7일 밤에만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거문고자리는 아폴론이 시인이자 음악가인 아들 오르페우스에게 선물했던 하프를 딴 별자리라고 해요.

<독수리자리>



여름 동쪽 하늘에 보이는 십자 형태의 별자리예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거문고자리와 마주 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자리의 가장 밝은 별, '알타이르'를 견우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진짜 견우성은 염소자리의 '다비흐'란 별이랍니다. 독수리자리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해요.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에서 신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할 젊은이를 찾으려 독수리로 변해 땅으로 내려갔어요. 결국 트로이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던 소년 가니메데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갔지요. 그 후 가니메데는 올림포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궁수자리>



은하수 가운데에 자리한 별자리예요. 궁수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술한 영웅들을 가르친 스승, 케이론이 활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요. 케이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센타우루스 족이랍니다. 활시위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전갈의 심장에서 빨강게 빛나는 안타레스를 겨누고 있다고 해요. 궁수자리에서 케이론이 활시위를 당기는 부분의 별들은 주전자 모양을 하고 있지요. 또 주전자 손잡이 부분은 6개의 별이 국자 모양을 이루는데, 이를 큰곰자리의 북두칠성과 비교해 '남두육성'이라고 부른답니다.

<헤라클레스자리>



한여름에 머리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로, 한쪽 무릎을 굽힌 채, 한쪽 손에는 곤봉을 들고 다른 손에는 뱀을 든 헤라클레스의 모습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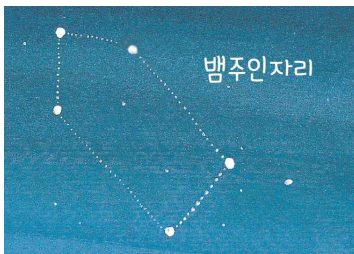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제우스의 부인 헤라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청년 때는 헤라의 꾀에 빠져 노예가 됐고 자유를 얻기 위해 열두 가지 모험을 해야만 했지만, 모든 모험을 무사히 이겨 냈지요.

<왕관자리>



목동자리와 헤라클레스자리 사이에서 7개의 별이 반원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남쪽 하늘에 또 다른 왕관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둘을 구별하기 위해 '북쪽왕관자리'라 부르기도 하지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겔마(진주라는 뜻)'는 왕관 중앙에 박힌 보석처럼 보인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별자리의 왕관은 크레타 섬의 공주 아리아드네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한테서 결혼 선물로 받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관이에요. 아리아드네가 늙어서 죽게 되자, 디오니소스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이 금관을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뱀주인자리>



여름철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로 헤라클레스자리 남쪽, 전갈자리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모양은 가늘고 긴 오각형인데, 맨 아래 부분은 뱀자리와 공유하고 있지요. 별자리에서 말하는 뱀주인은 의사를 뜻해요. 뱀은 허물을 여러 번 벗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생의 힘, 즉 의술을 상징한답니다. 뱀주인자리의 주인공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로 양손에 뱀을 잡고 있는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아폴론의 아들로 후에 케이론에게서 의학, 약초 다루는 법 등을 배워 죽은 사람까지 살리지만,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고 만답니다.

<전갈자리>



여름철 남쪽 지평선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S자 모양의 별자리예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냥꾼 오리온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강한 자는 없다며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니자, 화가 난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려고 전갈을 풀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 전갈이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해요. 밤하늘에서도 전갈은 오리온을 계속 쫓고 있지요. 전갈자리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오리온자리가 서쪽으로 져 버리고, 전갈이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쫓아가면 오리온은 동쪽에서 떠오른답니다.